

# “보수 정부 호남 차별·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과 드린다”

## 이정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장 강하게 방침을 짚은 분야는 화해와 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특히 보수 정당 대표로서 호남에 공식 사과하며 화해의 손길을 보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사과를 통한 화해 시도=보수 진영의 당 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처음 호남에 사과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호남 차별에 대해 사과하고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호남과의 연대·연합정치까지 거론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던 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 유신시절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거나 이후 당 대표, 원내대표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한 적은 있어도 호남에 대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전략을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벌이는 ‘호남 구애 경쟁’에 여당까지 가세하는 현국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8·9 전당대회 경선 중 “대선에서 호남표 20%를 가져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이 주도하는 국회 개혁=이 대표는 정치 개혁과 관련, “국회가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 혁명적인 국회 개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70년 가까이 된 현재의 국회가 악순환을 반복한 것은 ‘셀프 개혁’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처방을 내렸다. 국회가 아닌 국민 주도로 국회 구성구석을 살피도록 함으로써 혁명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자는 의미다.

## 국회 개혁 ‘국민위원회’ 제안

## 국민 참여 조건부 개헌론 제시

## 사드·노동 4법 강경 입장 천명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도 “특정 정권이나 정당, 정치인이 주도해 추진하는 정치헌법, 거래헌법, 한시 헌법은 안 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 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이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추진 방법과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 유지=이 대표는 대북 안보 문제와 관련, “일부 정치인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 가르기 수단으로 이용

하거나 양비론을 넘어 북한 당국이나 주변 관련국이 오판하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사드 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및 법안에 대해서 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 것을 야당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 “사드 배치는 순전히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사안이란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대승적 결단과 오직 애국심 하나로 받아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 관련 4개 법안을 일일이 지적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중점 법안을 설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 “비전도 자성도 없는 아바타 연설” 맹비난

야당은 5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실정에 대한 반성 없이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며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권여당 비전과 국정 실패 자성, 민생고통 대책 없는 3무(無)의 남 탓 연설”이라며 “아직도 자신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혹평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현안은 외면한 채 대통령 생각 전파하기에 몰두

한 ‘아바타 연설’에 박수조차 아깝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고 현실을 인식하지 않는 이 대표의 연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연상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손대변인은 특히 “호남에 대한 일방적 구애 역시 지난번 청와대 방문 결과에서 드러났듯 현실성 없는 언어유희에 불과한 것 같아 민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표 뒤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앉아있다. /연합뉴스

## 朴대통령 “사드, 3국 안보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 시진핑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

###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 각자의 입장과 이견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호국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공식발표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더욱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 규원형 외교안보수석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

했다. 이에 시 주석은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며 상대국의 핵심이익 존중을 강조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 문제(사드 배치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의 모순을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또 “양국 간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과 함께 다자회의를 계기로 사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나갈 기대한다”며 “한미중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은 물론 한미중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 포괄적 논의를 해나가는 제

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도 “양국관계를 올바른 궤도 위에서 평온하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긍정적 부분을 확대하고 부정적 요인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면서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는 것) 노력’ 등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求同和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대를 확대)를 지향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시급성과 임종성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연합뉴스

## 국회 안철수 “휴전선이 과거·현재라면 미래는 평화통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5일 “휴전선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라면 우리의 미래는 평화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 경제에서는 혁신이, 정치에서는 개혁이, 그리고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평화 교류와 공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 참석차 출국했던 안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은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평화통일을 이뤘고, 협치를 통한 합리적인 개혁을 통해 지금 유럽의 강국이 됐다”며 “우리로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인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를 만들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 경제에서는 혁신이, 정치에서는 개혁이, 그리고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평화 교류와 공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선 “심히 유감스럽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2016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모집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40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4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8	1	
사범	유아교육과	19	1	
예능	음악학과	10	5	
	실용음악학과	17	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6. 9. 12(월) ~ 21(수) •전형일 : 2016. 9. 30(금)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전형일 : 2017. 1. 12(목)

### 대학원

####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1(화)
- ② 전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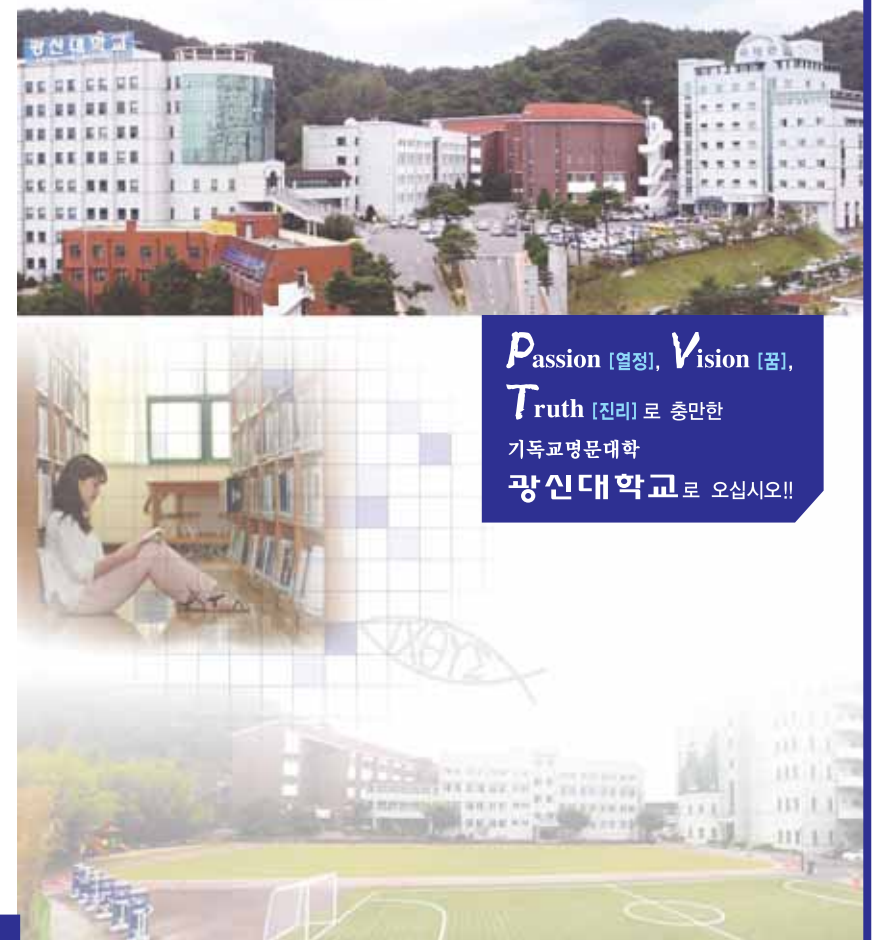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16. 11. 4(금) 오후 3시

#### ▶일반전형

-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8(화)
- ② 전형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2016. 11. 11(금) 오후 2시30분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2016. 11. 11(금) 오전 9시 40분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1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2016. 11. 12(토) 오후 2시40분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M.A.)	10	2016. 11. 12(토) 오후 2시 40분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